

인권위 자료집 2

1988
고문·용공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보안사 김병진 사건을 중심으로

cpk1.16

고문·용공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주소/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 - 46
기독교회관 307호
- 전화/ 764 - 020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cpk1.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우리는 김병진씨의 경우,
'보안사'에서 고문으로 조작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는 군 보안사에서
이같은 고문·용공 조작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이민족으로 슬한 차별을 받으며 사는
재일동포들에게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는
고문·용공조작사건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 머릿말 중에서

인권위 자료집 2

고문·용공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보안사 김병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책 머리에

김병진씨의 체험수기인 「보안사」는 인권위원회에서 완역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다른 출판사에서 번역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계획을 변경하여 적은 분량의 자료집으로 펴내게 되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시는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이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1986년 김근태씨 사건 당시에도 「고문·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가 전체 운동권과 연합되어 「고문·용공조작 공동 대책위원회」로 확대 구성되었으며, 김근태씨의 고문 용공조작 사건 등에 폭넓게 참여하였다. 결국 이 활동이 모체가 되어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가 탄생하게 되었고 한국 민주화의 큰 획을 그었던 6·10대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는 김병진씨의 경우, '남영동'에서 사건이 조작된 것이 아니고 '보안사'에서 고문으로 조작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는 군 보안사에서 이같은 고문·용공조작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이민족으로 술한 차별을 받으며 사는 재일동포들에게 간첩으로 누명을 씌우는 고문·용공조작사건은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병진씨의 「보안사」를 대중적인 보급의 측면에서 (소나무)출판사가 출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완역을 포기하고 다만 인권위 자료집 제2권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펴내기로 하였다. 제1장에서는 『신동아』 88년 9월호에 실린 글이 「보안사」 책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전재하였다. 제2장은 원본 중에서 고문에 관계된 부분과 사건조작 부분에 중점을 두어 중요부분만 번역하여 실었으며, 제3장에서는 1973년 보안사의 고문·용공조작에 의해 내란예비음모죄로 구속된 '남산야외음악당 사건'의 관계 인사 중에서 김동완 목사와 황인성 총무의 진술을 통하여 그 사건이 어떻게 보안사에 의해 조작되었는지를 밝히려고 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본 위원회 사무국장인 김동완 목사가 회의차 일본에 갔을 때 김병진씨를 만나 대담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부록으로는, (소나무)출

판사의 책을 압수·수색하였고, 지금도 군기법 위반으로 대표 유재현씨를 수배하고 있는데, 이것의 적법 여부를 인권위원회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문의한 답변서를 수록하였다.

한편 본 위원회가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저자 김병진씨와 「보안사」를 출판한 일본출판사인 만성사에 적극적인 교섭을 벌여 주었던 존 나카지마 목사(일본 기독교단 총무)와 마이지마 목사(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이들을 통해 김병진씨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음도 밝혀둔다.

김병진씨는 책이 출판된 이후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양심적인 회개가 부족했다는 점을 토로하며 이 점을 제일 먼저 밝혀달라고 하였다. 또한 자신이 보안사에 '포섭'되어 사건들을 조작하는 데 협력함으로써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는 보안사에 의한 조작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현재 자신은 경도의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수도 없어서 일본 내에서도 피신중이라는 사실도 전해왔다. 뿐만 아니라 김병진씨 자신도 「보안사」가 인권위원회에서 자료로써 출판되는 것을 희망적으로 표현했고, 출판했던 만성사도 저자와 한국의 〈소나무〉출판사의 양해하에 발행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후 본 위원회는 〈소나무〉출판사와 몇 차례 만났으나 확실한 결론없이 이 자료집을 비매품으로 출판하게 되었는데, 〈소나무〉출판사의 이해를 믿으며 하루 속히 자유로운 판매가 보장되어 그 출판사의 책이 널리 읽혀짐으로 보안사의 용공조작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길 바란다.

본 위원회는 88년 4월에 인권침해 상황에 대처하는 「인권수호지침」을 인권위 자료 제1집으로 출간한 바 있는데 이 책은 그 후속편이며, 다시금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출간한 것임을 거듭 밝힌다.

1988년 11월 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 차례 ●

책머리에/박종기————— 3

제1장

대한민국 국군보안사(I)————— 9

제2장

대한민국 국군보안사(II)————— 37

제3장

1. 조작극을 폭로하며/김동환————— 137

2. 악몽같은 보안사에서의 체험/황인성————— 152

3. 고문·용공조작 영원히 사라져야(대담)

김병진·김동환————— 161

제4장

부록————— 175

대한민국 국군보안사(I)

『신동아』 88년 9월호에서 전재

연행, 고문, 그리고 「공소보류」

나에게는 그렇게도 그리웠던 조국이였다. 조국을 찾아 온 재일동포 2세인 나는 길을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나와 한 핏줄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도 마음 흐뭇해 했다. 고국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 연애라는 것도 해 봤다. 그녀와 가정을 이루고 아들녀석도 둘 수가 있었다. 삼성종합연수원 일 어강사 자리를 구하여 분수에 넘는 보수를 받고 연세대 대학원을 다니는 나의 학구생활은 보람에 차 있었다.

그러던 1983년 7월 9일 토요일 오후의 일이었다. 노랑진 수산시장에 들러 생선 한 마리를 사들고 아직 백일이 안된 아들 얼굴을 생각하며 귀가를 서두르는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수사2계 L모 중사.

“데모하다 잡힌 연대생 하나가 당신을 잘 안다고 하니 신원확인하는 데 협조 좀 부탁한다”

그의 이 한 마디가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셈이 되었다. 수사과 분실, 일명 서빙고호텔이라고 일컬어지는 악명 높은 곳으로 나는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욕설과 고문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토목공사 수도공사 전기공사라고 부르는 온갖 공사판(고문)을 벌였다. 그 아비규환에서 빠져 나왔을 때에는 온몸이 멍들어 있었다. 얼 빠진 내 머리 속에 맴돌던 한 마디는 당시 수사2계장 K모 소령의 협박이었다.

“네 처는 자살하든지 몸 버리든지 둘 중의 하나다. 그뿐이나. 네 얘기는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게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고아원에 보내겠다”

8일만에 일단 석방된 나는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일본으로 밀항할 것도 생각했다. 여권은 이미 빼앗긴 뒤였으므로 빠져나갈 길은 밀항밖에 없었다. 그러나 백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를 대동한 모험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감시만 받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8월 17일, 나는 재차 연행되었다. 나는 L중사로부터 재일한국학생동맹에서의 나의 선배 서성수(徐聖壽)씨를 김해공항에서 입국할 때 붙잡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가족의 안전과 내 개인의 무력함 때문에 일본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나의 연행사실마저 연락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용활용」, 보안사에 특채

같은 해 10월 19일, 그들은 나를 간첩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KBS-MBC측에 「격려금」까지 주면서 「특별프로」를 제작케 했다. 특별프로 제목은 「유학생을 잡아라」였다. 어처구니 없는 제목이었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나는 그때 「기소」되지 않았다. 「공소보류」라는 조치를 취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지 않는 「죄인」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들은 나를 「역용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사 수사관이 되라고 요구했다. 나를 살려 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되라는 것이었다.

나와 처는 나의 보안사 「특채」를 거절하기 위한 모든 핑계를 대 봤으나 모두 허사가 되었다. 몇 번이고 죽음을 생각해 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곤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는 「특채」에 응해야만 했다.

이후 나는 보안부대 중의 보안부대, 대공처 수사과에 내근하면서 정보분석반에서 일을 했다.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대공교육시 보안부대원에게 써 내는 「대공설문」 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첩보」를 분석하는 일에 몰두했다.

「대공첩보」, 말은 그럴 듯하지만 서류몽치와 씨름하면서 남의 프라이버시를 「업무」로서 침범하는 일이었다. 집안 일가 중에 재북자 재일연고가족이 있다면 그 대목 하나만으로 대공용의자가 되고,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언

동을 했다던 그 용의자의 배후관계를 예하부대에 「내사」토록 지시를 내리는 일이었다. 주고받는 용의자들의 검열편지는 내가 번역했고, 전화감청을 녹음한 테이프 중 대화가 일어로 돼 있으면 모조리 내 책상 위에 쌓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평조의 근원인 정보공작정치의 한복판에서 내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이 수치스러운 현실에 입 다물고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고 장준하(張俊河) 선생님이 그분의 수기인 「돌베개」에서 몇번이나 적으신 “못난 조상이 되지 말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2년간을 참고 견디었다.

일본으로 도피한 그날, 1986년 2월 1일부터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 글은 주간지 『아사히 저널』 논픽션에 우수작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 글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나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도, 또 그곳에서 실제로 많은 고생을 하는 요원들의 노고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무리한 방법으로 간첩을 조작해 내는 과정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

재일동포유학생 이군의 경우

나는 1984년 1월 4일 보안사에 특별채용되었다. 채용되기 전인 1983년 후반기에도 간첩용의자를 「심사」할 때는 통역으로 호출되기도 했었다.

83년 연말께 나는 L중사로부터 몇 번젠가 되는 호출을 받았다. 속칭 삼청동 보안사 후문에서 그를 만나 내가 간 곳은 장지동에 새로 지은 수사과 분실이었다. 수사과장 U중령은 나를 일부러 호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간첩 하나를 잡아 두고 있다. 너를 불러 낸 이유는 처장님(C대령)의 지시다. 네 임무는 그 간첩의 진술을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겪었던 경험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볼 때 「간첩」이라고 그들이 낙인찍었다면 그 진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A급이든 B급이든, 아니면 C급이든 간에 간첩을 잡았다면 그들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각종 훈·표창이 주어지고, 「해외시찰」이라는 선물도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나에게 「진땀이」나 「시시한 것」이나를 판가름해

보라는 말인데,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피의자」로 석 달째나 감금당해온 이군은 나이 스무살을 갓넘은 제일동포 모국유학생이었다.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이던 그는 지역보안대 대공과의 「근원발굴계획」에 의해서 연행돼 있었다. 영장도 없이 석 달씩이나 구속돼 온 이군은 대구에서 조사를 받아 오다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작업을 위하여 사령부 수사과 분실에 와 있었다.

나는 K준위(수사2계 학원반반장)의 지시대로 이군의 「진술서」라는 것을 읽어 봤다. 모국어로 갈겨진 그의 진술서에는 일본에서 어느 야간대학에 다닐 무렵 김모 이모라는 정체불상의 북괴공작원에게 포섭되었고, 또 북괴공작 선을 이용, 「입북」까지 했던 「진땀」간첩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입북시 자기가 평양에서 목격했다는 주체의 탑이나 김일 성 동상 등의 건조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사관(사령부 공작과 Y소령)에게 권총의 조립분해를 해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군의 진술서를 단숨에 읽어 내렸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진술서에서 보는 한 이군은 틀림없이 「간첩」이었다. 나는 내가 이곳에 호출받아 온 이유까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말투가 약간 어색하다 하더라도 이군은 똑똑히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구태여 통역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산 증거물」로 이용되다

수사관들의 후일담을 종합 해보면 내가 호출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 이러했다. K상사(수사3계)가 장지동 분실에서 이군이 대충 진술서를 완성시킨 것을 보고 “이상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적어 서명 날인하라”고 이군에게 지시했더니 “이상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적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피의자의 저항은 웬만하면 폭력으로 봉쇄되는 것이었으나, 송치 작업만을 맡은 사령부 수사과는 C대공처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하게 된 배경에는 사령부 수사과와 공작과 간의 암투가 있을 것이다. 이군을 용의자로 선별하고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보안대는 사령부 공작과의

지휘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군이라는 「성과」는 지역보안대와 동시에 사령부 공작과의 「성과」이기도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군 검거가 「수사미스」라는 수사과의 보고를 들은 C처장은 격노했다고 한다. 공작과 수사관들은 물론 수사과에도 욕설을 퍼부었다. 「성과」는 탐나지만, 어설픈게 기소했다가 공판에서 뒤집어진다면 「장군심사」를 고대하는 C처장에게도 불리한 것이었다. C처장은 심사숙고 끝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수사2계가 재수사를 맡은 것이었다.

나에게 부여된 임무는 이군과의 「면담」이었다. “너의 임무는 너 자신이 간첩으로 검거됐으나 아무 벌도 안 받고 이렇게 자유스럽다고 말하면 된다. 그리고 겁내지 말고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이었다.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작업에 동원됐다는 사실은 나를 긴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이군에게 해야만 하는지 나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수사관들의 뒤를 따라 「심사실」에 들어갔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다. 너와 같은 제일동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신문을 잘 보아라.”

K준위는 가지고 들어온 서류뭉치 틈에서 내가 간첩이라고 보도된 신문을 꺼내 이군 눈 앞에 던졌다.

“이 사람은 간첩으로 검거됐으나 당국의 배려로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있다. 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 증거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우리는 자리를 뜨겠다. 감시병도 붙이지 않겠다. 너희들 대화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마음 놓고 이야기 해도 좋다. 물론 일본어로 하는 게 의사소통이 빠르겠지.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를 해 보면 어때? 이야기 해 보겠나?”

이군은 K의 제안에 동의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나쪽이었다. 파란 수의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이군의 모습은 얼마전까지의 나의 모습이였다.

K준위는 「자유로운 대화」를 보장하겠다고면서 심사실을 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심사실이라는 곳은 천정 네 구석에 거울이 끼워져 있다. 그 위에는 원격 조종되는 TV카메라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다. 도청마이크도 당연히 있다.

터무니 없는 날조극

“자네 진술서를 잠깐 봤네.”

나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군은 나의 말은 들은채 만체하면서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간첩으로 잡혔나요? 이 신문에 나오는 사람은 진정 당신 인가요?”

간첩으로 잡히고 기소됐다는 사람이 자기 눈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군은 그 신문이 발간되던 날에는 대구지역보안대 건물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 신문은 「진짜」신문이다.”

나는 내가 진짜 간첩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다.

“그럼 당신도 나와 같은 것을 당했었지요? 부탁드립니다. 가르쳐 주세요. 어쩌서 나는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이제 석 달이나 됐어요. 억지로 사람 잡아 놓고 나를 「간첩」이라고 구박하더니, 이렇게 두꺼운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전기고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말 한 마디에 그렇게 대답해 보니까 다음에는 언제 「포섭」됐느냐고 하면서 다시 폭력, 폭력, 폭력... 나는 「포섭」이라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간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배님, 선배님도 나와 같은 것을 당해왔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거짓말이라도 그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대답해 주면 나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초면인 나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이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이 광경을 훑쳐보고 있을 수사관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고 또 이군의 박력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이군은 처음으로 심정을 드러내도 괜찮은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나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얼떨떨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나의 힘없는 이 말은 이군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군은 말을 계속했다.

“선배님, 나는 「북」에 갔다온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내가 군사훈련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요.”

이군의 「입북」과 「군사훈련」은 나도 그의 진술서를 읽고 의아스럽게 생각되던 부분이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다. 자네 진술서를 내가 봤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지. 그 진술에 의하면 북에 갔다온 경위라든가, 북에서의 생활, 그러한 것들이 아주 소상하게 표현돼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놀랐던 것은, 자네가 북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권총분해와 조립을 수사관 앞에서 해 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

이군은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어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이군은 나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겪은 날조극보다 더 터무니 없는 날조극의 희생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군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유도심문으로 「사실」 만들어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 수사관들의 요구에 타협해 보자는 유혹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든다(나 역시 그랬고 피의자는 모두 그렇다). 그리고 한가지 타협은 백 가지 타협으로 이어진다. 그 수법은 이른바 유도심문이다.

폭력과 회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이군은 북에 갔다온 것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이군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어떻게 갔느냐”는 것이었다. 당황하는 이군을 보고 공작과 Y소령은 이런 말을 던졌다. “보통 동해바다쪽 일본 해안선에 고무보트가 닿아서 사람을 실은 후 바다 가운데에 대기하고 있는 모선에 갈아 태우고 가는데 너의 경우는 어떠했느냐”, “북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충 XX정도의 거리를 가야하는데, 공작선은 한시간에 OO정도의 거리를 간다. 너의 경우는 어떠했느냐”는 식이었다.

이군은 Y소령의 말을 듣고 산수계산을 했다고 했었다. 질문은 또 계속됐다고 한다. “평양에 가면 천리마동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높이가 OO미터 정도인데, 안 봤느냐”, “평양에는 주체의 탑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안 봤느냐”. 만사가 그런 식이었다고 이군은 나에게 호소했다.

이군의 하소연은 계속되었다. 군사훈련을 운운할 때도 여느 때와 같이 공작과 Y소령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Y소령은 실물 권총을 가져 와서 이

군에게 분해해 보라고 으박지르는 것이었다. 이군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권총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Y소령은 “앞부분을 돌려 보는 것이 아니냐”는 암시를 주었다. 오른손이 총구로 갔다. 만져보니 거기에는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군은 총신에서 가느다란 부품을 빼는데 성공했다. 그 후도 Y소령의 암시에 따라 끝까지 분해를 했다. 조립은 빼낸 부품을 순서대로 거꾸로 끼우니까 됐다. 자신의 힘만으로 됐다고 한다.

나는 나중에 Y소령이 분실 내 수사관 대기실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옛날 일이라 잊어버린 모양이어서 내가 실마리만 가르쳐 주었지.”

이 말은 이군이 나에게 호소한 내용을 추인하는 결과밖에 안되었다.

「공소보류」는 조작 시인 의미

나는 이군이 간혀 있는 심사실에 앉아 있기가 거북스러웠다. 이군은 나에게서 모종의 도움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때의 나의 입장으로선 그런 일은 불가능했다. 나는 이군의 독백에 그저 떨리기만 하고, 또 나의 무력함을 개탄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었다.

“가르쳐 주세요 선배님”이라는 그의 말은 더욱더 나를 괴롭혔다. 시들어진 지푸라기를 곧추세우듯 나는 버티었으나, 이군의 질문에는 “끝까지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겨우 대답할 뿐이었다.

“사실을 말하면 다시 고문 당하는 걸요.”

이군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복도에 나가 보니 모니터로 내가 방을 나가는 것을 안 K준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군을 만난 인상을 묻는 K의 질문에 “이군 말이 거짓말 같지가 않다”고 대답하면서 던지시 이군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K에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이군과 나의 괴이한 「면담」이 있던 후 수사과·공작과 합동회의를 소집한 C처장은 대통령보고까지 올린 「간첩검거」(간첩검거는 대통령 보고사항임) 사실이 대공처 내에서 손발이 안맞아 일을 그르쳐 가는 김새를 알아차리자 경상도 억양으로 부하들을 힐책했다(그 회의엔 나도 동석했다). 회의를 끝낼 무렵 C처장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

“이군의 범죄사실 중 입북은 빼라. 처치의견은 「공소보류」로 하라.”

공소보류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공소보류제도는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반국가행위자라 할지라도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공소제기를 보류, 2년간 당국의 감독하에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보류자도 검거간첩으로 간주되어 포상금이 지급되고, 훈·표창과 해외시찰이 약속된다. 「공소보류자」라는 것은 「공소유지가 어렵다」, 즉 날조라고 정보기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물건」(간첩용의자를 보안사에서는 이렇게 일컫는다)에 대해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C처장은 그 후 모보안부대장으로 영전해 갔는데, 영전하기 전인 84년에는 5·16민족상(안보부문)을 수상했다. C의 「업적」을 나열한 책자를 보면 그가 잡은 간첩은 60여 명이나 되고 있었다. 책자에는 나도 물론 포함돼 있었고, 이군 또한 엄연한 간첩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군은 조국분단이라는 잣대에 올려진 희생물이 되었다. 나는 이군과의 「면담」을 통해서(그 때는 내가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군은 결과적으로 옥살이를 면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기적적인 행운에 지나지 않는다.

염치불구한 「평화공작」

84년 초경 보안사 수사과로 출근하면서 대공업무 「연수」도 마치고 어느 정도 정보기관이라는 조직에서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정보기관이라는 데에서는 고급간부가 아닌 한 기관이 벌이고 있는 수백 가지 「공작」 전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부대원이라 할지라도 「보안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책상과 의자가 마련된 수사과 내근 사무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안사 내의 정보도 비교적 빨리 나도는 곳이었다.

「평화공작」, 이 공작은 군사독재가 어리석은 지배자의식에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두드러진 예이다.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Ⅱ세의 공식방한이 결정되기 전의 일이라고 한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은 안기부, 치안본부, 그리고 보안사라는 대한민국의 전 정보수사기관에 “예산에 개의치 말라. 종교계에 침투한 북괴간첩을

로마의 「중대거리」가 오기 전에 기필코 색출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한다.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민인 로마교황을 「중대거리」라는 말로 지칭했다는 것이 보안사 내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었다.

어쨌건 이 공작은 로마교황이 평화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에 착안, 「평화공작」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세 기관의 합동공작이라는 대규모 공작이었다.

이와 같은 공작이 전개되게 된 배경에는 보안사 심사과(의식화학생들의 강제징집과 병영내 「순화교육」, 그리고 불온서클 와해공작을 담당) 과장 S중령이 직접 대통령에게 제의하여 채택된 것이라고 한다.

전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때 보안교육대 대공학 교관으로 있던 S소령(당시)은 교육대 강당에서 의식화학생 강제징집과 신입대학생 전방부대 입영훈련을 끝자로 하는 학병제를 제의, 전사령관으로부터 격찬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S는 전대통령 「백」으로 중령으로 진급, 대공처 내에 신설된 심사과장을 맡았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강제징집제도」는 의식화학생들의 「순화」는 커녕 많은 「사고자」를 만들어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S의 입장은 난처해 가기만 했다. 대령진급심사 날은 다가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이런 S과장이 입안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것이 「평화공작」이었다.

대공첩보중 「의식화관련첩보」를 심사과로 돌리기 위해 내가 심사과로 가서 본 사실인데, 수사과에서 평화공작 「지원」으로 나가 있었던 어느 여성수사관은 「미사니 야유회 때문에 나한테는 휴일도 없다」는 푸념을 하곤 했었다. 수사과에서 지원기간 여성수사관들은 이복출신인 모신부와 가톨릭계 청년들을 공작목표로 해서 영등포성당에 침투했었다.

대공첩보의 확인연락차 예하부대 대공과와 매일같이 전화연락을 취하는 나에게 예하 부대원들은 “이놈의 평화공작 때문에 죽을지경”이라고 뉘두리를 해댔다.

목표는 재일교포유학생

공작담당자가 아닌 내가 정확한 전체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기는 하나

서울관할 보안부대와 심사과 직원들의 말을 근거로 추측해 보면 훗날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고초를 치르게 될 민청련의장 김근태(金根泰)씨, 그리고 그의 친형인 김국태(金國泰)씨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 같다. 이들 형제의 만형이 월북자라는 배경과 이들이 반정부골수분자라는 점에서 볼 때, 만약 이 형제가 북에 있는 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등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거물간첩이 탄생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활동은 북괴의 조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S과장의 대공이론이 증명되고, 나아가서는 종교계 반정부활동을 봉쇄하고 전두환대통령의 임기후반기를 반석 위로 올려놓는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정부활동은 북괴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는 S의 이론을 증명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반정부면 반정부지, 왜 간첩이냐”는 불평이 예하부대 실무자 입에서 나오기까지 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성과」도 없이 공작을 종결지을 수 없는 것이 S과장의 입장이었다.

S과장은 수사과에서 평화공작지원으로 나가던 L하사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L하사가 쫓고 있는 북괴와 남한 종교계를 잇는 「연락책」 색출에 마지막 희망을 건 것이다. L하사는 심사과의 J라는 여성수사관과 함께 대학가를 누볐다. L하사의 착안점은 역시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이었다.

수사과 수사관들은 흔히 “재일교포유학생은 가장 만들기 쉽다”고 얘기한다. 사실 내가 봐 온 「간첩심사」에서도 재일동포 유학생은 수사관들이 「만들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다.

6·25라는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와 격리된 재일동포사회에서 대공경각심이 모국에 비해 희박하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사실이다. 그러한 재일동포사회 혹은 일본사회에서 자란 젊은 재일동포들은 남한의 대북한자세에 대해 소박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같은 동포인데 왜 그러느냐”는 것이다. 좀더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은 김일성독재이고, 남한은 군사독재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L하사가 북괴연락책을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중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대공수사관으로서의 정석을 밟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L하사의 「근원발굴」에는 두 가지의 제한조건이 붙어 있었다. 하나는 수사과나 공작과의 대상자를 제외해야 할 것, 또 하나는 대상자가 종교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여성수사관의 「침투」

그는 어느 여학생을 지목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제일동포 유학생 이모양이 바로 그 목표물이 되었다(이양은 나와 같은 국문과 대학원생이었으나 전공을 달리했기 때문에 같은 강의를 수강한 적은 없다).

L하사가 그녀를 지목하게 된 경위는 이양의 하숙집에 제일대한기독교청년회 출신자들이 하숙했었고, 이양 자신이 제일대한기독교 계통의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번 「이대 탈춤반 연습을 구경」갔었다는 것이었다(탈춤에 대한 관심은 L하사의 논리로는 「불순성」을 뜻했다).

그는 매일 대상자들의 편지를 나에게 가져와 번역을 시키곤 했다. 감청녹음테이프도 가져 왔다. 제일대한기독교 어느 교회의 바자회에서 팔 노리개를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해 달라는 국제전화가 이양에게 왔을 때는 마냥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교회바자회에 내놓을 노리개 구입과 「간첩」이 어떤 관계가 있던 말인가.

S과장은 석사논문 준비를 위해 연회동에서 창천동 연대 앞으로 이양이 하숙을 옮기자 마자 새하숙집의 주인할머니를 포섭하고, 여성수사관 J를 이양 옆방에 「하숙」시켰다(이것을 침투공작이라고 한다).

J는 민간회사 사무원을 위장하고 이양에게 접근했다. 내가 J에게서 직접 들은 것인데, J는 “장래를 위해서 일본어를 배워 두고 싶은데, 조금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가르쳐주어서 고맙다면서 과자봉지를 들고 이양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J가 공작원이라는 것을 이양이 상상이나 했을까. 좌우간 이 두 여성은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

이양은 다시 장래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으로 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대우를 못받으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선생이나 될까”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시집이나 가버릴까” J는 그럴 때마다 이양의 푸념을 들어주고 같이 생각을 해 주었다.

이상한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J가 나에게 간혹 이야기해 주는 이양과의 「우정」은 진실한 것이었다. J와 이양은 이양의 석사졸업 전에 기념으로 설

악산까지 여행한 적이 있었다. 둘이서 밤에 춤추러 갔다가 어떤 남자 둘이 자기네들을 「꼬시려고」 쫓아오는 통에 혼났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물론 J의 「우정」과는 별도로 이양의 동태·언동사항은 S과장에게 꼬박 꼬박 보고되었다. “간첩같지가 않다”는 J의 의견은 무시한 채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간 다음에는 다시 한국에 나올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J의 보고가 S과장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평화공작의 다른 분야의 성과도 시원치 않다는 사정이 S과장을 더욱 이양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양은 마침내 84년 7월 김포공항에서 L하사에 의해서 연행되었다. L하사가 낚아챈(수사관들의 은어) 이양은 심사과 본실로 연행되었다. 이양은 석달동안이나 감금되었다.

「간첩만들기」와 상사병

당시 보안사에 근무한지 반년도 채 안되었지만, 나는 수사과의 연행조사를 몇 번이나 봐 온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양은 조만간에 훈방(석방)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나와 이양은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연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정치문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첩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낙관은 어긋났다.

“김병진씨, 일본 동경에 있는 조총련 본부건물은 몇 층이지요?”

충성전화(보안사의 전화망)로 나를 찾은 L하사는 느닷없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모르겠다고 하니까 찾아봐 달라고 하길래 어느 노수사관에게 물어본 다음 L에게 연락해 주었다.

“4, 5층 정도가 아닌가, 그러네요.”

“이상하네. 본인은 3층건물이라 하는데. 뭐, 3층이나 4층이나 비슷하겠지.”

나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 차렸다. 시간적으로 봐서 간첩으로 만들 것을 포기하고 피의자에 대한 훈방 전의 교육, 즉 “의심 받은 네가 나쁘다. 그러나 전도유망한 젊은이이고 자신의 부덕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은 봐주고 돌려 주겠다. 여기서 조사받은 것을 절대로 입밖내 내놓지 말라. 만약에 얘기하면 네 신상에 안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도 인연인지 모른

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힘이 돼 줄 수도 있다. 우리가 너의 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피의자를 훈방할 때면 틀림없이 되풀이 하는 말을 하고 있을 만한 때였다. 그런데 조총련 본부라니 웬 말인가.

“L하사,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요. 이○○은 북한에서 김일성뱃지까지 받아온 초일류의 여간첩이니까 조사해야 할 것들이 태산같네요.”

북괴 대남공작에는 「은밀성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대공수사관으로서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양의 경우는 L하사의 말을 전제로 생각하면 그 원칙에 어긋나고 있었다. 대남공작원은 불필요한 북한계 물건을 절대로 소지하지 않으며, 조총련본부라는 공개된 장소를 드나들지 않는다.

사태는 명백해졌다. 심사과는 이양을 간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싫증날 정도로 이양의 편지를 번역했었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를 본의 아니게 읽음으로써 이양의 마음이 아주 섬세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섬세한 마음이 고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L하사가 요구하는 스토리에 수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나는 L하사와의 통화내용을 수사과 어느 노수사관에게 말했다. 그 노수사관은 피식 웃으면서 몇 번인가 나에게 해주던 말을 다시 해주는 것이었다.

“간첩을 만들려고 할 때, 한 대상에 집착하면 상사병에 걸리고 만다. 아무리 오랫동안 수사관 해먹어도 그렇다.”

사실 아무리 공작원을 침투시켜 감시해 봐도 간첩이라는 낚시를 보이는 동향은 커녕 이양은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적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L하사와 심사과 직원들 말에 의하면, 「대상자의 정치적 무관심은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대남공작원의 기본적 행동원칙」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간첩이옵시다”라고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야 있을 수 없겠으나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어도 간첩, 없어도 간첩이라면 세상 사람 모두가 간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입장이 또한 그런 것이었다. 오직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양을 「훈방」시키기만을 빌 수밖에 없었다.

전기공사, 수도공사, 토목공사

평화공작이 보안사에서는 심사과를 중심으로 전개돼 가는 한편, 수사과도 84년도의 성과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과장(U대령의 후임)의 진급문제가 임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과의 각 외근계는 제일동포유학생들만을 목표로 삼았다. 만약 심사과에서 실제로 평화공작으로 성과를 거두면 S과장의 대령진급은 확실한 것이 되고, 따라서 수사과장 O중령은 진급경쟁에서 탈락하고 만다.

“여러분의 상사가 누구인가. 이 O중령이다. 여러분은 나를 O대령이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이 말은 수사과가 공개수사(연행조사)로 들어가기 전에 O과장이 수사과 전수사관들을 내근사무실에 모아 놓고서 하던 연설 중에 나온다. 그래도 모자라서 장지동 수사과분실 강당에 젓상을 차려놓고 「성과거양」을 신령님께 비는 고사까지 올렸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수사과의 분위기는 무리를 해서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압력으로 둔갑했다. 각도를 바꾸어서 말한다면 날조를 위한 결의가 수사과에 나돌았다는 것이다.

수사과는 84년 8월말일부터 공개수사로 들어갔다. 각 계가 가지고 있는 연행대상자 중 2계의 대상자인 윤정헌(尹正憲)씨가 고대 앞 노상에서 납치된 그날부터 하늘은 울기 시작했다. 이 호우가 그치지 않고 한강을 격노시켜 물난리를 빚었다. 잇달아 김포공항에서 입국하려던 조일지(趙一之)군 조신치(趙伸治)군은 자기네 하숙집에도 못가고 장지동으로 직행했다. 각 계의 대상자 중 두 명은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제일교포 학생 세 명 모두가 간첩으로 만들어지리라고는 당시 생각지도 못했었다. 노수사관들의 좌우명인 「무리하면 안된다」는 말에 기대를 걸기만 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수사과 각 계의 1번 타자에 불과했었다. 만약에 「물건」이 안되면 2번타자 3번타자가 줄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1번타자들은 2주일가량 「공사관」을 벌인 다음에 모조리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전기공사」 「수도공사」 「토목공사」(고문의 은어)를 「시공」하는 「작업장」은 속칭 「엘리베이터실」, 정식으로 「강력심사실」이라고 하는 밀실이었다.

2계 대상자 윤정현씨는 일본에서 경도대학을 다닐 당시 북괴공작원에게 포섭, 간첩교육을 받기 위해 북괴선박인 만경봉호를 타고 입북한 것으로만 들어졌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공작지도원의 신원을 바꾸어야 했고, 만경봉호를 탔다는 입북방법을 삭제해야만 했다.

조신치군의 경우는 「꼭 석방해준다」는 5계장의 거짓말 유혹에 넘어가 「산본(山本)」이라는 가공인물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나는 이 아수라장에서 5계 대상자인 조일지군의 통역을 맡았다. 그 폭력의 현장에서 조일지군의 힘이 되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언어소통이 잘 되는 나에게 조일지군이 일말의 의외심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K계장의 지시로 “바른대로 말이 안나오면 돼지우리(돼지우리)는 일어로 감방을 뜻한다)로 집어 넣겠다”는 말을 조군의 마음을 고립시키는 방도로서 내뱉는 쓰디쓴 경험까지 하여야만 했다.

그들을 간첩이라고 의심해야 할만한 뚜렷한 용의점은 없었다. 물론 물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만들기 쉬운 「재일동포모국유학생」이었을 뿐이었다.

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간첩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실상에 대해서 요약해보자.

기관에서 쓰는 용어이지만 「대공취약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적(북한)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뜻인데, 대충 다음과 같은 부류로 나뉘어진다.

◇ 월북자 — 6·25 혹은 그 후에 월북한 자로서 북에서 남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행불자 — 월북가능성이 있어서 월북자에 준해서 본다.

◇ 남북귀환어부 — 남북시 적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부역자 — 타의든 본의든 과거 적에 협조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적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 밀항도일(渡日)자 — 일본밀항시 제일조총련 등 적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조총련연고가족, 월북자연고가족, 정보사범전과자 — 사상적 불순성

때문에 적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반공포로 — 6·25 휴전 후의 포로교환시 남한간류를 희망한 자로서 위장간류 혹은 그후에도 적과 연계될 가능성을 본다.

물론 이외에도 더있다.

보안사 수사과 내근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이러한 「대공취약자」들의 신원리스트가 입력되어 있어서 매일 바뀌는 패스 워드만 두드리면 열람할 수 있다. 화면에는 「대공인물」이라는 리스트로 나온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실제로 간첩으로 만들어지기 쉬운 것은 남북귀환어부들이었다. 조업 중의 월경이 북한에서 남치해 가는 이유이지만, 북한에서 남한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할당이 있는 모양이어서 월경남치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듯했다.

남북된 어선이 남한으로 돌려질 때면 매스컴들이 어부들을 인터뷰하고 북한을 비판하는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아는 터이지만, 그러한 행사가 끝나면 어부들은 인천 혹은 속초시내의 어느 여관에 감금되어 안기부 치안본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한 합심(합동심사)을 받아야 한다.

보안사 수사과에서도 그 심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정해지고 있어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남귀어부」들에 대한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심사」라는 것은 고문이기 때문이다. 재북중에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지령을 받았는가를 심사한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폭력을 당한 후에도 그들은 시찰대상자가 되어 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북한 여자는 미인이더라”고 말했다는 것이 단서가 되어 간첩이 된 남귀어부가 있었고, 강원도 탄광촌에서는 파업에 가담한 남귀어부가 “북괴지령사항을 실천했다”하여 간첩이 됐다.

내국인 용의자의 경우 내근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가 조사과정을 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수사관들의 「고생담」(입장을 바꾸면 피의자들이 「수난담」이지만)을 들어보면 재일동포들이 허위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대동소이했다.

늘어난 공소시효

말로 들은 이야기지만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월북자 연고가족인 전남 출신 나모씨의 간첩사건이었다(나씨는 아직도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씨의 누님이 6·25당시 남편 따라 월북했던 사람으로서 그후 고향인 해남에 출현, 동생인 나씨를 대동 입북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초 전남관할 보안부대에서 첩보보고로 사령부 수사과로 올린 것이었으나 수사과 5계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5계 수사관들의 말에 의하면 나씨는 「지독한 놈」이었다. 한겨울 알몸으로 밖에 내놓고 얼어붙게 해도 자백을 안했다고 한다. 고추물을 먹여도 안되고 전기에 달아봐도 안된다고 했다.

어떤 연유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나씨를 일단 석방했다. 나씨는 당시 서울에서 어떤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본의 어느 회사와 거래가 있었는데, 거래전화는 일본어로 하기 때문에 그 감청테이프를 내가 번역했다. 5계가 기대한 것은 일본을 경유한 연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통화에는 상거래 얘기 말고는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씨는 다시 연행되었다. 나씨의 입북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1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있었다. 5계는 나씨를 「계속범」이라고 조서를 꾸미고 송치했던 것이다. 나씨의 바로 밑의 동생되는 사람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관 판단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하여 기소유예가 되었다.

수사과 내근사무실에는 법무관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 이 사람은 사건이 없을 때는 「기업하에서의 법운영체제」를 상부의 지시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나씨 사건이 있는 후에는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연구도 하명됐다. 내가 근무할 당시 무기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30년으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었는데, 요즘의 한국법전을 뒤져보니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었다.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제일동포학생들의 송치작업이 시작됐을 무렵이었다.

평화공작을 지원하고 있던 L하사를 위시해서 심사과 직원들이 수사분실로 들어왔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L하사에게 물어봤더니 “처장님

재가를 얻어 이양과 고순자(高順子)의 조사를 여기서 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고순자 역시 제일동포유학생으로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는데, 이양과의 「접촉인물」이라 해서 연행된 것이었다(그녀는 후일 일본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고문을 폭로한 바 있으므로 실명으로 표기하겠다). 이양을 「물건」으로 만들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 제일한국학생동맹에 소속한 바 있는 고순자라도 물건을 만들어 보자는 속셈으로 심사과는 고순자를 연행해 왔던 것이다.

미제 소형 전기고문기

나는 나의 불만을 거리낌없이 L하사에게 표시했다. 수사과에선 심사과의 무능함을 비웃고 있었으며, 나 자신이 소속하는 수사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표시가 가능했던 것이다.

“L하사, 아직 결론 안난 거예요?”

“쇼부는 지금부터다.”

L하사는 신경질적 어투로 한마디 하고 나서는 그녀들이 수용되어 있는 지하실로 내려 갔다.

나는 기계실로 들어 갔다. 그리고 누구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지하실의 TV모니터 스위치를 틀었다.

공작과의 여군중사 C가 이양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고 있었다(C는 처장 지시로 심사과를 지원하고 있었다).

“너는 여자냐, 남자냐.”

“여잡니다.”

“그 정도 알 수 있는 인간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앞뒤가 안맞아….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뱃지를 받고 조총련 본부에서 교육 받고…, 그리고…”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양은 L하사가 들어오는 것을 걸눈질로 힐끗 보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떨리는 몸으로 뒷걸음질을 했다. L하사는 미제 소형전기고문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떨고 있는 이양에게 “아직 바른대로 대지 못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철제책상에 불꽃을 쏘았다. 이양은 “끼약!”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진 때였다. 대공처장이 수사분실로 들어왔다. 송치 작업을 독려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술냄새가 평평 쏟아졌다.

나는 다른 수사관들과 기계실에 있었다. 어느 수사관이 모니터 스위치를 넣었다.

소장실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면 안에서 C처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C처장이 주연을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분실 피의자 수용동에서는 다섯 명의 제일동 포학생들이 내일을 기억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스 C 애인 없어? 없으면 좋은 사람 내가 소개해줄까? 응? 어때!”

이양을 남자와 같은 말투로 심문하던 여성수사관 C가 “호호호”하면서 웃었다. 그 대화에 이어서 수사과 O과장, 심사과 S과장, 그리고 각과의 계장들과 다른 여성수사관들의 웃음소리가 소장실에 넘쳐 흘렀다.

그 주연에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S심사과장이었다. 그는 수사과가 가지고 있는 「재일협조망」을 심사과 대상자들의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C처장에게 부탁하곤 했었다.

「재일협조망」이라는 것을 보안사는 여러 루트로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믿음직한 협조망은 일본의 깡패 오야붕인 양모와 일본 경시청을 정년퇴직한 한 일본인 콤비였다. 그들은 수사과 2계의 협조망으로서 그들의 손발같이 잘 움직였다.

그들이 보내오는 수사자료는 물론 내가 번역했고, 일본 관공서에서는 반출금지로 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원본 카피까지도 일본 경찰의 협조로(정식수사의뢰가 아님) 보내 왔었다.

「평화공작」의 종결

일본인 형사와 재일한국인 깡패, 그들과의 보안사측 창구가 되어 있는 사람은 2계의 J준위였다. 그는 일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위장신분으로 일본을 드나들고 있다. 이른바 「출장수사」라는 것이지만, 하는 일이라야 피의자들 입에서 나온 다방이니 식당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일 등이었다. 또 윤정현씨 사건과 관련하여 보안사협조망인 한국인 K를 시켜 윤

씨 친가에 가서 윤씨의 책장을 뒤져 보는 일같은 일들이다.

서대문구치소에서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수받기 위해서 장지동으로 교도관들이 왔다. 석방해준다는 말을 끝까지 믿고 수사관들의 유도심문에 응했던 조일지군은 포승줄로 퐁퐁 묶였다. 그는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심사과가 연행한 여성들은 다행히 「훈방」되었다. 마사지와 약으로 치료하고 멍든 자국이 지워진 다음에야 석방되었다. 심사관은 결국 「물건」을 못만들었던 것이다. 심사과는 의식화학생들의 「순화」만을 해온 부서로서 간첩 만드는 데에는 도사가 못되었던 모양이었다. 수사과 어느 노수사관의 말마따나 “개네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싶었으면 김일성뱃지니 조총련본부니 하는 말은 만들지 말아야지. 정체불명의 북괴공작원에 포섭된 간첩이라고 해 놓으면 될 걸... 공소유지가 어렵다면 공소보류시켜도 한 건한 셈이 되는데, 멍청한 것들!”이었다.

고순자씨는 일본으로 가자마자 보안사의 고문을 규탄했다. 이양은 그후 소식을 못 들었으나, 여자의 몸으로 석 달씩이나 연금되고 고문당했으니 정신이 이상해지지나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수사과에서 송치한 3명의 재일동포 「간첩」들은 서울지법에서 징역 7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신치군만은 간첩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심청구가 통과되어 찬양고무죄(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만 적용되어 2년의 옥고를 치른 후 일본으로 왔다. 자신이 간첩이 된 배경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온 그에게 찬양고무라고 인정된 언동사항의 사실여부를 물어 봤다. “북한은 지상의 낙원이다”라는 소리를 했느냐는 나의 질문에 조군은 발언사실을 부인했다. 윤정현씨와 조일지군은 올해 6월말에 「가석방」되었으나 4년 세월을 허송하고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것이다.

「평화공작」은 이양과 고순자의 석방으로 종결지어졌다. “그간 수집한 정보를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라”는 단서를 붙이고 종결됐다.

S심사과장은 진급에서 탈락했다. 대신 O수사과장은 그렇게도 갈망했던 대령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보안사 대공처 심사과는 해체되고 학병제관련 업무는 정보처가 인수했다.

악착같은 조작극

나는 보안사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보안사 수사관이라는 엄연한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숨기고 검거간첩으로 다른 제일동포피고인들 공판에서 검사측 증인을 서야만 했다.

나는 다시 밀항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일본 어느 신문사 특파원을 접촉하였으나 밀항하는데 도움을 청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했다.

85년 5월 내가 5계 K계장으로부터 분실로 나와달라는 호출을 받았을 때는 토요일이었다. 피의자는 일본에 사는 43세의 제일동포 유모씨였다.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수첩내용을 조속히 번역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은 나는 수첩번역만 하고 분실을 떠나려 했다. 「간첩심사」라는 것에 깊이 관련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현실이 또 나를 통역관으로 만들었다.

유씨는 민단 모지부의 총무부장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두 번의 단장 선거에서 현직단장측 선거참모로 활약했다. 그것이 단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전 민단 단장 Y씨와 그의 추종자들의 미움을 샀다. Y씨는 몇차례 안기부에 「유는 간첩」이라고 찢렸으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허위신고임을 간파한 안기부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보안사 K계장에게 다시 찢르게 되었다. 그는 기막힌 모략극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유씨가 맞바야 했던 고문은 그가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던 까닭에 내가 봐온 그 어느 피의자들보다 지독한 것이었다. 기절을 세 번 했고 병원에도 드나들어야 했다. 그의 발바닥은 몽둥이로 몰매를 맞아 검푸른 색으로 부어 고름까지 흘렀다. 견지도 못하는 유씨에게 눈가리개를 하고 「처형한다」고 번쩍시 공갈을 치던 K계장의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다. 별거벗긴 피의자들 각목에 달아올리고 고추물을 먹이는 현장, 그 현장을 지켜보는 나 자신도 정신이 돌아서 버리는 것만 같았다.

사실 3년이 지난 오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나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유치한 방법으로 스토리를 꾸며가는 수사관들의 모습과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유씨의 모습은 나에게 「그를 살려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였으니까 말이다.

나는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와 의논하곤 했다.

내가 군법회의에 회부될 각오도 해 봤다. “당신 입장도 생각지 않고 남을 살려 주려면, 나와 얘기를 죽인 다음에나 해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처의 불안과 고민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나는 그를 살려주어야만 했다. 그를 살려주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유씨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신병은 서대문 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입북간첩」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송치했으니 그가 공판에서 아무리 결백함을 주장해 봐도 거의 틀림없이 「사형」을 언도하게 돼 있었다.

다행히 유씨와 나의 작전은 적중했다. 유씨가 검사 앞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거의 동시에 「입북」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일본변호사의 서류가 도착한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유씨의 「사건」이 날조임이 증명되었다.

유씨는 당연히 무죄석방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J검사와 보안사의 입장에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공소보류」로 결론이 났다. 그는 결국 봄에 왔다가 가을에야 겨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국의 공안기록에는 어엿한 검거간첩으로 기록되었다.

“다시는 한국에 갈 생각이 없다. 또 만약에 내가 간다고 해도 가족들이 허락치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 만난 유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독 유씨뿐만 아니라 정보공작의 희생물이 되어 조국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제일동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일이다.

고국을 떠나면서

1985년 11월 나의 공소보류기한이 만료됐다. 같은 「범죄」로 형사소추를 안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참아온 2년이 겨우 지났다. 보안사는 나를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퇴직」을 위한 사전운동을 전개했다. 2년간이나 매일 얼굴을 맞대어 오던 수사관들, 특히 노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나에게 대한 동정론도 있었다. 이러한 운동이 필요했던 배경에는 나를 풀어주고 싶어하지 않는 보안사 간부들의 속셈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핑계를 댔다.

“생계도 어렵고, 공소보류 기한 만료를 계기로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처의 두번째 해산을 일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본으로 가겠으나 대학원에 복학해야 되니까 나만은 즉시 재귀국하겠다.”

“앞으로는 민간인으로서 보안사에 협조하겠다.”

나는 나름대로 만든 시나리오대로 수사관들을 설득했다.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나의 퇴직은 인정되었다. 나는 1986년 1월말일 퇴관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이나 압수되고 있던 여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비행기를 타면서 마지막으로 본 조국강산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언제 다시 밟을 수 있는 땅인가 생각하니 처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86년 2월 1일 오사카에서 비행기를 내린 나는 그날 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동기 친구에게 “역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만 했다.

87년 2월 가끔 연락을 취하던 보안사가 다시 나에게 접촉하려고 했다. 매우 좋고 괜찮은 직장도 마련해 놨으니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온 나에게는 경제적 안정은 매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다. 끝을 맺지 못했던 원고 일부를 정리하고 어느 신문사 주간지에 투고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 원고가 다행히 우수작으로 뽑히고 이 수기를 간행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구시대의 비리 종식시키자

나는 내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바라든 안 바라든 간에 국가의 정보활동이 요구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고문과 협박, 그리고 모략을 일삼는 일부의 행태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말 대한항공기폭파실종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행기가 이미 폭파된 다음에나 북괴대남공작원 김현희를 잡는 우리의 정보기관에 국민들의 생

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가난한 우리 조국에서 그들에게 베푸는 포상금 등의 국가예산이면 대한항공기 폭파실종사건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 높은 활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쓰는 글이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자의 「반국가적 행위」로 처단될 수도 있음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겠지만, 나는 우리 거래와 내 양심 앞에 죄 짓지는 않겠다. 서투른 글이나마 우리의 역사가 내게 내린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펜을 잡게 된 것이다.

이제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나의 경험과 목도한 사실들에 바탕하여 지난 날의 불행했던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시대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리운 조국을 찾아가 내가 직접 입을 열 용의가 있다.

조국을 떠난 지 벌써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은 부모의 말은 한국어로 듣고 대답은 일본어로 하는 이중언어 생활자가 되었고, 처의 일본어도 제법 익숙해졌다. 일본에서 태어난 딸은 조국을 모르면서 커가고 있다.

모국어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이곳 재일동포들의 현실과 그 사고방식에 국어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저항감을 느낀다. 또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조국의 문화권에서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야 하는 이곳 재일동포들의 모습에서 지난 근현대사의 우리 거래의 비애를 느낀다. 재일동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즉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 없이 자유로이 조국을 오가면서 새로운 재일동포의 미래상을 창조해 나갈 수 없는가 하는 바람이 더욱 간절해진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몸으로 이 순간에도 한국 어느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을 재일동포 이철(李哲)씨의 다음 말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일본에서 멀리 받고 조국이라 찾아와 보니 감옥이었읍니다”

1983년(기)

한글 표기법

한글 표기법은 한글의 발음과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이 표기법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위치와 모양을 통일하고, 어휘의 통일과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표현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이 표기법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위치와 모양을 통일하고, 어휘의 통일과 함께, 한글의 아름다움과 표현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보안사(II)

김병진 저 『보안사』에서 발췌

1983년(상)

한국 국군보안사령부

보안사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염라대왕같이 무섭고, 의아스럽다고 여겨져온 한국 국군보안사령부도 역시 관료의 사회이다. 이덕룡 해군중사의 상관인 보안사령부 대공처 수사2계장 김용성(金容成) 육군소령은,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의 재일한국인을 연행하면서 수개월 전부터 어떤 초조감에 빠져 계속 고민해 온 듯하다.

김용성은 서울 동국대학교 재학시, 지원에 의해 일종의 군사교육을 받은 ROTC 출신자였다. 그런 관계로,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에 는 미치지 못하고, 진급심사에서 언제나 뒤로 밀려 있었다. 한국 국군보안사령부의, 그것도 수사과에 파고 든 기회만큼은 좋았는데, 이 해를 놓치면 계급정년자로서 '제복을 벗지 않으면 안되는(군적을 이탈해 예비역이 되는 것)' 사정이 김용성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다. 김용성이 이제까지 수사1계장으로서는 내근의 한직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도, 언젠가는 외근(수사2, 3, 5계)계장으로서는 성과를 올려서(스파이 검거), 「보국훈장」의 영광을 누리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에게는 지금이 40세의 남자로서 중령 진급의 마지막 찬스였던 것이다.

원래 처세술에 능한 김용성은, 그를 괴롭혀 온 「전라도 출신」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빌라'라고 불리는 고급맨션을 소유하고 있었고, 수천만원이나 되는 계를 몇 개씩이나 들고 있었다. 군장교의 박봉에도, 그는 보안부대원으로서 특권을 휘둘러 사복을 채워 왔다. 기관원이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 최대의 무기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군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예

비역 소령으로는 고위직을 바라볼 수가 없다. 적어도 대령 정도가 아니면 불안하다. 여러가지 「운동」—— 그들은 인사에 관한 청탁이나 이면공작을 이렇게 부르지만——의 결과, 외근 중에서도 수사2계장에 보직된 것은 김용성에 있어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수사2계는 보안사령부가 가장 신뢰하는 「재일협조망」(일본에 있는 협력자)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뿐 아니라, 2계 안에서도 「학원반」이라고 불리는 반장 고병천(高炳天) 육군준위 이하 4명으로 구성된 팀은, 그들 나름의 표현을 빈다면, 「가장 만들기 쉬운」 재일한국인 모국유학생을 교묘할 정도로 「요리」해서, 상사의 뜻에 맞춰온, 직업근성을 가진 베테랑들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만을 보더라도, 보안사령부에서 소위 성과라고 불리는 것으로 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집단뿐이었다. 고려대학생 이종수(李宗樹)군과 같이 재일한국인 모국유학생들이 그 먹이로 되어 있었다.

그해 1983년도는 김용성 자신의 진급심사뿐 아니라 상사인 수사과장 우종일(禹鍾一) 중령의 대령 진급심사까지 겹쳐서 계장급에 대한 진급이 예년에 없이 엄격한 해였다.

김용성은 83년도 수사2계 활동방침안을 작성하면서 4분의 3기 내, 즉 1월부터 9월까지의 시기에 성과를 올릴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준사관(준위 및 하사관), 문관의 총수 11명의 부하들로부터는 불평불만이 자자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것은 군 조직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용성의 부하 한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 군사회, 특히나 보안사령부 대공수사관으로서 행세하는 이상, 그 나름대로 야심에 차 있었다. 스파이를 만들어 내서 「주교자」(主巧者) 또는 「조교자」(助巧者)라고 인정받으면, 그들에게도 훈장과 포상금이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사를 험구하면서, 서울대학 부속 재외국민 교육연구소의 협조망에서 「재외국민 모국유학생 명부」를 입수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모국유학생(물론 대부분이 재일동포)의 신상기록을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각 대학의 학적과를 통해서 또 상세한 정보——출신교과, 유량한 경험이 있는 여부라든가, 일본에서 대학생활의 경험이 있는가 등등을 엄밀하게 체크해 갔다.

수백 명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보안사령부 예하의 각지 보안대에는 본적지

내사가 지시된다. 가족의 도일배경—— 부모 혹은 조부모 대에 어떻게 해서 일본에 건너갔는가, 팔촌 안의 친척과 인척을 포함한 연고가족 가운데에 재북자(북조선제주자), 부역자(6·25동란때 공산주의 활동이나 협력경험을 가진 자), 재일조총련 가입자가 있는가 등을 면밀하게 보고하도록 한다. 그 내용에 덧붙여, 과거에 연행해서 조사한 자들의 교우관계, 학원 내에 얽어놓은 협조망, 하숙집 주인이나 지도교수로부터 받는 동향정보, 일본의公安(公安)과 잡다한 자들로부터 받는 첩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모국유학생 위장 조총련간첩 중점대상자」라고 하는 리스트가 작성된다.

이렇게 해서, 학기말이나 학기초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시기와 상사가 요구하는 시기를 고려해서, 연례행사처럼 스파이 사냥이 행해지는 것이다. 연행조사에 영장이 있는 예는 외국인을 빼고는 없다. 그리고 내사라고 불리는 일련의 작업은 은밀활동을 철칙으로 하고, 매년 수십 명이나 되는 중점대상자에 대해서(그 대부분이 재일동포 모국유학생)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의 지도교수까지 망원(網員, 통보자)으로서 포섭된다. 또 「S공작」이라고 불리는 전화도청, 우편집배원을 매수하든가, 우편국을 송두리째 포섭한 우편물 검열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동향감시와 함께, 대상자가 지방여행이나 일본에 돌아갔을 때에는 하숙집 주인의 협력을 얻어 가택수사를 행한다. 물론 수색영장 같은 것은 필요 없다.

A-3통신문——북조선의 대남공작용의 난수해독표같은 것이 발견되면 틀림없이 스파이겠지만, 학생의 소지품에서 그와같은 것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출판된 반한서적 내지는 한국내에서 떠도는 의식화(반정부)서적이 나왔다 하면, 그들은 「만들어진다」라는 심증을 얻게 된다. 하물며, 데모에 동정적이라든가 반정부적 언사를 토했다든가 하면, 그만 그들의 「꿈」은 곧이곧대로 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연행조사는 「공개수사」라고 불리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와 필요불가결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디까지나 수사는 비밀리에 진행된다.

김용성 소령은 공개수사에 들어가기 전, 한때를 이용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마인드 콘트를 강습에 참가했다고 한다. “호랑이같이 대들고 독사같이 물어!”라는 보안사의 행동훈을 마음 속에 담담하게 새겨두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수사관」이라고 불리는 그들에게는 대상자를 한 번 「서빙고」

에 연행하면 인간적 동정은 금물이다. 한 사람의 인간을 스파이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측면 중에서 「역적」으로서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과장하고, 꾸며대지 않으면 안된다. 「강력수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고문도, 고문을 가하는 인간이 대상에 대해 동정하고 있어서는 전혀 말이 안된다. 그들에게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우종일 수사과장의 보통 아닌 독려가 있는 탓으로 김용성 소령은 이 해, 예년보다도 더 빨리 계원(係員)과 함께 서빙고 분실에 처박혔다. 성과울리기에 집착한 나머지 약간의 「부작용」을 무시한 채 대학에서 1학기말 시험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분실에 처박혔던 모양이다. 금년도 유학생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기상천외한 세계

내가 연행되었을 때, 몇 사람인가가 취조를 받고 있었다. 수사관의 욕지거리와 정얼대며 났나간 대답을 하는 것을 복도를 걸으면서 들은 바로는, 그 말의 주인공이 젊은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곧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일본말 버릇이 가지지 않은 한국말이었다. 한 방에서는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는데, 이 소리도 역시 재일동포의 서투른 한국말이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1975년 11월 22일 발표된 「모국유학생 간첩단사건」과 같은 것이 발생해서, 일본에서 반정부활동의 경험을 가진 내가 뭔가의 관계로 조사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덕룡(李德龍)이라는 남자가 말한 “나를 잘 알고 있는 학생”이, 재일동포로 이 건물의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이덕룡의 말은 아귀가 맞는 것이다.

나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김용성은, 나를 연행한 차 안에서 이덕룡의 반대편 자리에 앉아 있던 우영기(禹榮基) 주사보를 나의 방에 보낼 계획이었다. 감시자와 두서없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 때, 능글능글한 우영기가 갑자기 방에 들어왔다. 감시자는 우영기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일어섰지만, 우영기는 전혀 앉으려고 하지 않고 시종 내 앞에 서있었다.

잠깐 동안 우영기는 엄격한 형상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겨드랑에 끼고 있던 8절지 몽치를 소리가 나도록 책상 위에 동댕이쳤다. 그 다음, 우

영기는 자기 앞에 있는 책상 양옆에 손을 짚고 선 채 머리만을 내밀고 나에게 호통치는 것이었다.

“야, 김병진!” — 아주 막말이었다.

“너에 관한 것은 발끝까지 조사가 끝나 있다. 여기 가지고 온 것은 모두 너에 관한 자료다.”

그 내용을 보니,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내가 견잡을 수 없는 불안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연기였다.

“우리들이 너를 데려온 것은, 너의 성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감추면 너는 죽어! 죄를 범한 인간이라도, 죄를 후회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허용된다. 김병진, 너는 대학원까지 다닌 인간이 아닌가. 더욱이나 아이까지 있어서, 누가 봐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냐!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인간을 데리고 오지는 않는다. 결심해! 좀 시간을 줄 테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결심을 하는 거다!”

우영기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지고 온 서류를 또 겨드랑에 끼고 나가버렸다.

나의 연행이 정치적인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예기치 않은 사태와 기상천외한 세계를 엿보게 되어 나의 마음은 중심점을 잃고 있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스파이로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해도, 스파이 행동을 했다고 인정될 만한 행위가 있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이었다. 중요한 국가시설을 함부로 사진을 찍었다든가, 북쪽 사람과 뭔가의 연락이나 관련을 유지하고 있었다든가, 지하조직을 구성했다든가, 그러한 실제의 행위가 있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이 머리를 쳐드는 것이었다.

그 뒤로 엄습해 온 것은, 억지로 만들어짐에 대한 불안이었다. 처자의 얼굴이 내 뇌리를 왔다갔다 했다. 이 자들의 페이스에 맡겨 들어가면 큰 일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스파이일 턱이 없는 내가 함부로 감금을 계속 당할 뿐이다. 나는 나의 과거를 한 번 되돌아 훑어보았다.

재일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과거

고교시절, 모교에서 결성한 「조선문화연구회」가 문제시 되었을까? —

그렇진 않겠지. 모국어 습득과 역사연구회를 목적으로 한 문화씨—클이, 한국의 첩보기관의 눈으로 보아서 그렇게 떠들만한 「반역성」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조선장학회—일제시대부터의 육영재단으로서 1945년 이후, 그 자산의 귀속을 둘러싸고 한국계와 북조선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소송으로까지 번진 경위를 가진 그 장학회에서 내가 고교생씨—클의 간사장이었던 사실이 문제가 되었을까?

문제의 촛점은, 일본에서의 나의 대학시절로 좁혀져 올까? 한학동(韓學同—제일한국학생동맹)에서의 활동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학동의 활동은 반정부활동으로서, 스파이 혐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와 같은 나의 경력이 뭔가 의문을 가져 오는 배경이 된다면, 이 자들의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그것은 저 남자가 말한대로 나의 것을 전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다.

나의 활동은 정치목표를 치켜든 활동은 물론 아니었고, 제일동포 2·3세를 대상으로 한 민족의식 계몽운동이요, 그 수단방법은 문화활동이었다. 그 사실은 오히려, 해외동포에 대한 본국정부의 무관심 내지는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며 마땅한 업적을 남겨 놓을 일이지, 본국정부가 이렇다 저렇다할 건덕지는 아니다.

「혼란 가운데 간첩 오고, 안정 가운데 번영한다.」

서울의 거리라면 어디서도 보이는 반공슬로건이, 「적(북조선)에 대한 경계심을 호소하는 것보다도 군사독재에의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 나라의 양식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다. 결국 반정부 = 용공 내지 이적 행위라는 것으로써, 한학동 활동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스스로 영구집권을 목표로 해서 헌법을 고치고,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출신답게 일본의 명치유신을 모방해 「유신체제」를 펼쳤다. 72년 7월 4일의 「7·4남북공동성명」은 군사독재 영구화의 포석 이었고, 민족통일의 숙원이 또 다시 위정자들에 의해 우롱된 시대였다. —73년, 나는 대학입학과 동시에 한학동에 투신했다.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투쟁의 물결이, 본국뿐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해외동포사회에까지 소용돌이친 것은 당연했다.

영사직으로 위장한 자가 「공작단」의 현지 지도책임자로서 민단 개편과 어용화, 즉 「유신민단」이라고 하는 제일한국인 조직의 친정부화에 광분했고, 반정부적인 제일동포에게 「베트콩파」라고 하는 기발한 이름을 붙였다. 한학동에 대해서는 「수박」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밖은 푸러도 속은 새빨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들이 겨냥한 최대의 사냥감은 스파이다. 나를 연행해서, 이제부터 어떠한 일이 시작될지는 아직 모른다. 나와 「북」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요구해 올 터이지만, 현실적으로 북과의 연계가 없는 나로서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예견해 볼 수가 없다. 한학동에 있었던 것만으로 내가 스파이가 될까? 일본에 있을 때 몇 사람인가의 조총련계 사람과 면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스파이 취급을 받게 될까?

조국이 분단되기 이전, 일본의 식민지시대부터 제일한국인은 형성되어 왔다. 그 역사를 살아온 제일한국인과 그 자손에 있어서, 민단과 조총련의 반목은 외면적인, 알맹이가 없는, 말하자면 별세계의 사건밖에 되지 않았다. 제일동포사회에 안겨진 「분단」은, 본국의 역사상황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진 역사이기도 했다. 두 개의 조국이 제일동포에게 「반공인가, 공산주의인가」를 택일하도록 강요해 왔다. 서울과 평양이 제멋대로 제일동포를 이데올로기로 색칠해 왔을 뿐이지, 당사자 제일동포는 시종 본국 권력의 장기말이었다.

나의 조모는 열다섯 살 때 부산에서 하관(下關)으로 가는 연락선을 탔다. 조모의 일본생활 중 조국의 분단시대는 그 절반을 차지한다. 해방 후에는 조부와 함께 「판신(阪神)교육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민족교육수호투쟁 때문에 유치장 신세를 졌었다. 그러나 조모는 보통의 주부였다. 이러한 사실이 거짓없는 우리들의 역사요, 제일한국인의 원점인 것이다. 그 시대에 제일동포의 내부에 좌·우의 미묘한 이니시어티브투쟁이 시작되었지만 나의 조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였다.

「제1차조사」의 시작

식사가 나왔지만 콩나물국을 조금 마시고 말았다.

이덕룡을 데리고 몸집이 작은 40대 후반의 남자가 방에 들어섰다. 이덕룡

은 다른 의자를 끌어, 그 남자의 옆에 조수처럼 앉았다. 키가 160cm 정도로 나이에 비해 동안인 남자, 후에 알았지만 고병천 육군준위였다.

“김병진, 여기가 어딘지 아나?”

“몰라요.”

악명높은 서빙고, 보안사령부라는 기관인 줄은 알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

“정보기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럼, 정보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는가?”

나는 우물우물 대답을 안했다. 그랬더니, 고병천은 마치 무슨 강의라도 하는 것같이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알겠어? 여기는 경찰이나 뺨치는 아주 틀려. 경찰이라는 곳은 좀도둑이나 살인자를 잡는 곳이지만, 여기는 정치범을 잡는 곳이야. 즉, 사상범을 잡는 곳이란 말이야. 우리들이 북한과 대치해 있는 사실은 자네도 알고 있지.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잡는 곳이라는 말이다. 우리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사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 순순히 자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몸으로 묻는 사태에 이르지 않는다고도 단언 못해. 우리들은 내가 미워서 데려온 것은 아니다. 자네는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 한 것은 아니다. 우선, 자네의 성의를 보여주어야겠어……”

“이 선생은, 이 길에서 15년이나 되는 대배테랑이야, 엉뚱한 숨김질을 하려고 해도 통하지 않아!”

이덕룡은 서기의 임무를 맡은 듯, 필기 준비를 하면서 불쑥 끼어들었다. 고병천의 톤은 점점 격화되어 갔다.

“야, 김병진! 내게도 너같은 동생이 있어. 나를 형처럼 생각하고 믿어봐. 전도 유망한 사람에게 가정을 버리게 해서 감옥으로 보내고 싶진 않아!”

달래는 말과 욕지거리가 내게 퍼부어졌다. 「사형」이라든가 「무기」라고 하는, 내게는 마치 별세계와 같은 단어가 자꾸 자꾸 튀어 나왔다.

“김병진, 사상 때문에 생명을 버려도 좋은가?”

고병천과 이덕룡은 두 사람의 만담사와도 같이 호흡을 맞춰가며 사태를

심각하게 끌여가기 위해 노력을 거듭했다.

그러는 사이에 한 남자(김용성 육군소령)가 쑥 방안으로 들어왔다. 40세 가량 돼 보이는 이 남자는 몸통에 비해 얼굴과 손발이 작아, 일견 중국인과 같은 체구의 소유자였다.

“고선생, 이 자의 태도가 어때? 말로 못 알아 들으면 빨리 VIP실로 데리고 가면 되잖아!”

「VIP실」이라는 곳이 고문하는 방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꽤 음험한 위협을 하는 자라고 생각했다.

“야, 김병진, 너는 일본에서 대학 다닐 때 한국노래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평판이더라.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미움을 받아 너는 사형이다. 법정으로 데리고 갈 만한 양반대우는 안해줘. 뒷마당에 끌고 가 즉결처분이야!”

그런 위협을 담담하게 뺀고는 그 자는 사라졌다. 그들은 집요하게, “네 일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네 입에서 스스로 말하게 해 성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병천 이하, 두 사람의 연설이 어지간히 일단락 됐다고 생각되는 시기를 끌라 나는 입을 열었다.

“묻는 말에 대해 대답하지요. 다만, 여기에 와서 몇 시간이나 지났으니 아내가 걱정되요. 집에 연락해 주시오.”

“연락은 우리들이 해. 집 걱정은 말고 네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

나는 3일 밤 내내, 자는 것이 금지되었다. 첫날 야밤중에 김용성이 나타났다.

“야, 김병진, 너는 직장에서 출장 안가?”

“일본어 강사에게는 출장 따위는 없습니다.”

“그럼 외박하는 일은 없는가?”

“결혼했는데 무슨 외박이예요.”

“그래, 훌륭해! 성실한 놈이군.”

김용성은 들락날락하다가 또 물었다.

“야, 김병진, 집에 연락했다. 직장동료와 너무 마셔서 전라도 광주에 있는 연수원 별장에서 다운됐다고 해됐어, 안심해!”

잠 재우지 않는 시간

나에 대한 조사는 체력소모가 대단히 많았다. 묻는 내용에 따라 8절지에 적어내면, 그것을 이덕룡이 검토하고, “글씨에 성의가 없다. 내용이 빈약하다. 반정부 슬로건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써라” 등 이유를 달았고, 때로는 모처럼 쓴 글을 내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기도 했다.

이런 작업과정에서 나는 3일간 한 잠도 못 잤다. 저들은 셋이서 교대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육체적 고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고초를 당하고 있을 시간, 우리집에서는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후일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내가 연행된 다음 날 오전 1시경, 아내는 김용성으로부터 기묘한 전화를 받았다. 정체불명의 김용성의 전화는(김병철이라는 가짜 이름의 피전화) 그 내용으로 보아 판단력이 빠른 아내를 믿게 할 수가 없었다. 아내는, 내가 납치되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색원을 내려고 친척 한 사람과 상의하고 있었다. 물론 아내 역시 한 잠도 못 잤다고 한다. 그런데 정신없는 아내와 생후 3개월도 채 안된 아기만 있는 집에, 김용성 이하의 수사2계가 가택수색을 강행했던 것이다. 아내는 까무라치고 말았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여성수사관 두 사람에게 의한 자택연금이었다. 외출은 금지되고 외부와의 연락은 끊겼다. 우리집은 육지의 고도가 되었고, 아기에 게 물려졌던 아내의 모유는 끊어졌다.

한심하다

나를 연행할 때, 운전하고 있던 김국련(金國連) 서기관보가 물었다.

“너의 일본이름은 뭐지?”

재일동포의 젊은 세대가 민족의식과의 갈등 속에서 본명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이름은 없다고 버티고, 재일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사는 나의 자세를 이해시키는 데 시간과 체력을 또 소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내가 한학동에 가입한 동기와 경위를 쓰라고 이덕룡은 말했다. 한학동은 당시 민단의 산하단체요, 민단에 소속한 학생은 모두 한학동의 맹원이었다

는 사실을 이덕룡에게 말한즉, 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했다. 나는 나에 대한 이덕룡의 대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학동이라고 하는 조직은, 북한의 흑색선전에 놀아나서, 그 행위가 이적행위인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반한」 활동을 하는 불순단체가 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한학동의 활동은, 나에게서는 어디까지나 반정부 활동이었는데, 「반한」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제적인 말을 사용함으로써 「반국가적인」 또는 「반민족적」이라는 뉘앙스를 드러내려고 했다. 뒷날 알려진 일이지만, 이 「반한」이라는 말의 선택 자체도 범정을 염두에 둔 작전이였다.

이덕룡이 좋아하는 5하원칙에 의하면, 우선 나는 「반한사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토양 위에서 불순분자의 권유를 받고, 한학동에 가입했다고 하는 구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의 작문은 그들의 검열에 합격이 안된다. 나의 진실은 최후까지 이덕룡에게 거부당했다. 이덕룡의 이와같은 태도는 제일동포사의 왜곡이었다. 하지만, 이 자들은 사실이라든가 역사라든가를 제멋대로 고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나의 한학동 가입은, 고교선배 H형의 권유였다. 이 말을 듣고 이덕룡은 만족했다. 이들은 H형이 한학동의 간부이기 때문에 H형을 불순분자로 보는 것이다. 이덕룡은 “한심하다”라는 말이 입버릇인듯, 한학동 시대의 본국민주화투쟁 지원연대라든가, 반파쇼 반박(反朴) 민주화투쟁과 집회나 데모에 관한 것을 나에게 씌우면서 “한심하다”만을 연발하고 있었다. 왜 한심한지, 그 이유는 한 마디도 해주지 않는다. 「북」의 선전에 춤춘다고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

간혹 김용성이 작업의 진전상태를 들여다 보면서, “오이, 오이”를 연발하고 갔다. 여기 저기를 더 구체적으로 쓰라면서, 빠뜨릴세라, 험박을 주고 나가곤 했다. 전라도 사투리의 새된 목소리가 신경을 건드리는 인간이었다. 한국어학을 전공한 내가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간 것은, 김용성이 쓰는 “오이, 오이”라는 표현이 한국말이 아니고 일본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40대의 남자가 「일제잔재」를 짊어지고 살고 있다니, 아마도 군인이기 때문이겠지.

우리들이 스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추구는 점점 그 핵심에 들어가고 있었다. 핵심은 「공산주의와 김일성」이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은사로부터 졸업선물로 「공장에서 과학으로」라는 문고책을 받은 일이 있었다. 또, 고교시절 윤리사회의 시험에서는 「공산당선언」의 저자를 칼·마르크스라고 쓰면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답으로 칼·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엔겔스의 공저라고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수사관들은 일본의 이와 같은 풍토가 절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빈다면 일본교육은 「범죄」이다.

분단은 조국을 지적으로도 고갈시켜 버렸다. 공산주의자들 아닌, 유럽의 산업혁명의 이면에서 진행된 비인간화의 현실을 새로운 방법으로 직시하려고 했던 문헌을 통해 인간소외의 실태와 사회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은 지적욕구의 소산이지, 공산주의에 대한 동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분단된 조국을 가진 나와 모든 동포들이 북과 남의 주장을 아는 일은 권리인 것이다. 특히, 일본이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난 제일동포 2·3세는, 종횡무진 지식욕을 배경으로 조국을 바라보려 하고 있다. 공산주의 문헌이나 「북」의 서적,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 받는 일은 일체 없었지만, 박정희의 전기나 한국홍보부가 낸 반공교양서적을 읽은 것도 북과 남을 알려고 한 탓이었다. 그것이 불행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1975년 당시의 일이었다. 자신의 사정과, 고교시절부터 마음먹고 있던 모국유학의 꿈을 어떻게든 실현시켜 보려고, 나는 한학동을 멀리 했다. 고오베(神戸)의 친척집에 신세지고 있을 무렵, 나의 일을 여러가지로 돌봐 준 선배의 한 사람 중에 고오베의 서성수(徐聖壽)형이 있었다. 서성수형은 굵은 일을 잘 돌봐주는 선배일 뿐 아니라, 왕성한 지식욕을 가진 학생의 좋은 토론상대요, 민족과 민족의 현실을 자기의 생활방법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열혈한이기도 했다. 83년 당시, 내가 연행된 때에는, 그 서성수형과 내가 4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학동에 모이는 학생이 사회과학의 지식욕에서 여러가지 문헌을 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본국의 반공체제가, 그러한 행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서형은 그러한 속박에 개의치 않고 북한사회에 대한 지식욕을 충족시켜 가려고 했다. 돌이켜 보건대, 북한사회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용기의 필요를 역설했던 것 같다. 그와같은 서형의 태도는 나에게 외경의 생각마저도 들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형이 「북」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말투가, 결코 「김일성주의자」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자신의 당연한 책무로서 김일성의 저작을 읽었고, 조총련의 간행물도 훑어봤었다. 취조 나홀만에 내 몸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수사2계는 한학동에 대한 감찰을 훨씬 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서성수 일당사건」보다도 먼저, 한학동 경도지부와 인연이 있는 모국유학생 이종수 군이 검거되어, 현재까지 옥에 갇혀 있다.

이군을 담당했다는 고병천 준위가 몇 번이나 나에게 말했다. “이 나라의 재판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다. 우리들이 스파이라고 말하면 스파이인 것이다”라고. 이 나라에서는 사법부가 다만 권력의 시녀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지의 사실을 나는 이 말에서 공공연히 확인했다. 그들은 조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스파이사건을 정치적 요구에 의해 빚어내는 것이다.

그들이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김정사(金整司)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김씨의 경우, 소위 범죄사실이라는 이야기 가운데 조총련계 인물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일본에 있는 한민통(1973년에 동경에서 결성된 한국 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 일본본부)이라는 것과, 전 대통령후보 김대중씨와의 관련에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 김정사사건은, 후에 김대중씨를 「내란음모죄」로 뒤집어 씌우기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 사람의 제일동포를 스파이로 만듦으로써, 그들은 「한민통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다」라는 한국대법원의 판례를 확보했던 것이다. 김대중씨가 뒷날 한민통과 결별했다고 해도, 결국 당초에는 그 의장에 추대되었으니까, 그들의 논법에 따르면 김대중씨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의 직책에 취임했다」라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 반국가단체에 관여한 김대중씨의 형량은 「무기 또는 사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1980년 5월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한 마지막 집권공작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스파이로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사를 받을 때에는 나는 아직 수사관들의 양식을 기대하고 있었고, “설마 이 내가”라는 태평무사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방망이에 의한 구타의 감각

이덕룡이 방에서 나간 지 한 시간쯤 지난 뒤, 김용성 소령을 선두로 고병천 준위, 이덕룡 중사, 김국련 서기관보, 그리고 나를 연행할 때 별도로 대기하고 있던 남자 최홍상(崔鴻相) 주사보가 한꺼번에 우르르 방안에 들어섰다.

그들은 말없이 각각 자리에 앉았다. 김용성은 창가 쇼파에 허리를 걸쳤다. 이덕룡은 나의 담당수사관이라 해서 내 앞에 앉았다가, 갑자기 돼지 멍 따는 소리로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누가 가져왔는지, 김용성의 발 옆에 단단한 나무를 조잡하게 깎은 방망이가 눈에 띄었다. 방망이의 손잡이는 청색 세로판테이프가 둘둘 말려 있었다.

“네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어! 이런 거짓말에 우리들이 속아 넘어갈 줄로 알아!”

그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힘들어서 쓴 나의 작문과 그가 씩씩거리고 쓴 조서를 탁, 책상 위에 놓았다. 분위기는 전에 없이 험악했다. 번갈아 방에 드나들던 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물려든 것은 처음이다.

“묻는 대로 대답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 더 큰 것을 감추고 있어. 네가 말한 것을 그런가 그런가 하고 받아줬더니, 제멋에 겨워 적당히 우리들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내 작문 자체의 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씩어져 있었다.

“지금까지 신사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해서 손을 안댔는데, 너는 엉뚱한 놈이야.”

김용성이 쇼파에서 벌떡 일어서면서 말했다.

“야, 김병진, 너 그렇게 죽고 싶어나? 좋아. 하지만, ‘응 그래’ 하고 죽이지는 않아! 이 세상의 허다한 고통을 주어서, 차라리 죽음을 그리워 하지 않을 정도로 말려서 죽여 주마. 하지만 너의 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한국에서는 스파이의 아내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자살 하든가 몸을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그뿐이 아니야. 네 아이는 애비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고아원에 보내지는 거야.”

후일 나는, 김용성과 얼굴을 마주치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나에게 가해진 여러가지 폭력이나 폭언보다도 그의 입으로 토해 낸 「자식을 고아원에 보내겠다」라는 말 때문에 나는 그에게 살의를 가지게 되었다. 뭔가의 기회마다, 그의 얼굴을 보고 내 손에 권총이 없는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김용성의 공갈이 끝나자마자, 이덕룡이 나에게 “안경 벗어!”하고 소리쳤다.

“왜요?”

말대답을 한즉, 이덕룡은 틈새를 주지 않고, 내 안경을 빼앗고는 내 뺨을 후려갈긴다. 이내 고병천, 김국련의 순으로 열을 지어 나를 구타하는 것이었다. 온건하게 보이던 최홍상이 마지막에 손을 댔다. 마치, 너를 믿는 수사관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부어오른 뺨을 의식하면서 나는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우리집에서 가지고 온 수첩을 훑어보고 있던 김용성이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말한다. 내가 지난날 수첩에 아무렇게나 써 던진 부분을 펴고 “야, 이걸 무슨 뜻이냐? 읽어 주지. ‘사기꾼의 거리, 서울. 엉뚱한 나라, 대한민국’……”

김용성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내 뺨을 몇 번이나 때린다. 눈앞에 별이 번쩍 번쩍, 시야가 가려졌다.

내가 일기 비슷하게 그렇게 쓴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1981년 5월, 아내와 결혼 후, 나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었다. 나와 같은 재일동포에 있어서 제일 손쉬운 일은 일본어 강사였다. 그래서, 나는 친구의 소개로 집 근처에 있는 외국어학원에 일본어 강사로 들어갔던 것이다. 새벽과 심야, 대학수업의 사이 사이에 그 학원을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그 외국어학원의 원장이라는 인물이 상당한 사기꾼이었다. 우리들 강사의 보수를 한두 달 밀리는 것은 당연했고, 그 보수조차 깎으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출판사의 번역일을 맡았는데, 거기서도 또 경영부진으로 번역료 지불이 질질 끌렸다. 이렇게 내가 경제적 곤경에 번민하고 있을 때 내 심정

을 옮긴 것이 이 일기였다. '사기꾼의 거리, 서울. 엉뚱한 나라, 대한민국'의 뒤에 나는 이렇게 계속했다. "— 하지만, 모처럼 내가 찾아온 조국이 아닌가. 일부 속빈 사람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돼."

그 다음에 공격받은 것은 한 통의 편지였다. 한학동 대판출신의 O양에게서 온 편지다. 그녀의 오빠가 나의 친한 선배이기도 해서 누이동생과 같은 기분이 드는 처녀였다. 그녀는 음대출신으로, 한국음악을 연구하려고 모국 유학을 생각한 끝에, 본국생활이 오래된 나에게 그것을 편지로 상담해 왔었다. 김용성은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다.

O양의 편지에 "의식적인 음악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이 편지는 모두 일본어로 쓴 것이었는데,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한글 자체나 역문의 어색함으로 보아 제일 한국인 여성에 의한 번역이라는 것을 곧 알았다. 「의식적」이라는 말이 어떠한 뜻인가라는 것이 김용성의 추궁이었다. 그 때문에 폭력은 계속되었다. 김용성은 정부가 만든 「의식화 = 반정부, 반체제」라는 단편적 언어의 오용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나는 몇년 전 학생수첩에 친구들과 만나는 장소로 무교동의 어떤 맥주집 약도를 그려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그들은 제멋대로 「서」라는 문자를 써 넣고, 내가 국내에서 서성수형을 만났다고 맹렬하게 어거지를 쓰는 것이었다. 그때에 예의 방망이가 이용되었다. 몸이 여기 저기 부어올랐다. 그들은 나를 사정없이 마구 쳤다. 하지만 사실은, 수년 전 일본에서 서성수형의 얼굴을 본 이래, 나는 한 번도 서형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서성수형의 한국왕래 자체를 나는 전혀 몰랐다.

방망이 구타의 감각은 「아프다」라는 것이 아니고, 몸이 경직되고, 숨쉴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방망이를 들어 올린 김용성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거꾸로 김용성을 때릴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중과부적으로 그의 충복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쏟아지는 욕지거리와 함께 방에서 끌려 나갔다. 내 두 손은 포승으로 단단히 묶여져 버렸다. 내가 끌려간 곳은 첫날 김용성이 얼핏 비친 「VIP실」이었다.

VIP실

작은 방이었다. 방의 불빛은 지금까지의 형광등이 아니고 보통 전구로,

나는 팔걸이의 의자에 앉혀졌다. 옷을 훌랑 벗기고, 여러 번 저항해도 두 손목과 두 발을 그 의자에 동여매는 것이었다. 내가 앉혀진 의자는 상하로 이동하는 듯했고 의자 좌대도 불안정했다. 지치지도 않고 욕지거리를 되풀이하는 그들은, "죽여 주마!"라고 외치면서 어떤 스위치를 넣었다. 나의 몸은 의자에 묶인 채 떨어져 내려갔다. 새까맣다. 둘째의 윤곽조차 가늠 못할 칠흑이었다. 순간, 질식할 것같은 공포를 느꼈다. 위에서 이덕룡이 소리를 질렀다.

"너는 북한에 갔다 왔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빨랑 실토해! 네가 지금 있는 곳은, 네게는 안보이겠지만, 너와 같은 인간의 시체를 두는 곳이다. 너의 아래에는 한강으로 통하는 하수도가 있다. 쥐도 새도 모르게 한강에 흘러보낼까, 어때, 언제 넌 북에 갔다 왔어? 그리고, 이 남한에 만들어 놓은 조직은 어디 있어?"

전율과 같은 것을 느꼈다. 직면된 죽음을 생각하고, 생에 대한 집착과 처자에 대한 애착에 몸부림치면서, 말인지 외침인지 구별 못할 소리로 이덕룡이 제멋대로 만들어내는 말에 나는 "노——"를 연발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나고, 내 몸을 젖히더니 빨려 들어가는 것같이 물이 아래로 흘러갔다. 그들이 내 머리 위에서 물을 부은 것이다. 몸에 한기가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말한 대로 발 아래에 하수도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겠지! 내 몸을 따라 흐른 물소리가 아직 아래가 깊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엘리베이터의 의자가 흔들흔들 아래로 내려졌다. 나에게 공포심을 넣어 주고는, 또 본디의 어둠 속으로 되돌아가고, 물을 붓고는 그들은 또 "에스"라는 대답을 요구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된 후, 내 목소리는 잠겨버렸다. 나는 여전히 암흑 속의 윤곽을 가늠해낼 수가 없었다.

간신히 처음의 보통전구가 있던 방에 되돌아 왔을 때, 그들도 이 이상은 헛일이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른다고 내심 한숨을 돌렸지만, 내 기대대로는 되지 않았다. 이덕룡은, 여전히 기상천외한 말과 씨부렁을 토하면서, VIP실 구석에 놓여 있던 수동식 군용발전기에서 두 가닥 코일을 꺼내 가지고, 묶인 내 양손의 집게손가락에 끼우려고 했다. 나는 발버둥 쳤다. 처음에는 용케 바둥거리려 코일을 제껴버렸지만, 두 손을 더 단단히 묶는 바람에, 코일을 뿌리칠 수 없게 되었다. 옆에서 고병천이 쉴새없이 드럼통에 든 물을 나

의 몸에 퍼부었다. 물에 빠져 물을 먹은 것과 같이 호흡이 곤란했다.

이덕룡은, 발전기의 레바를 잡고 “간다, 간다!”를 반복하며 “항복해!”를 외쳤다. 미칠 것같은 시간이 흘렀다.

김중필과 김재규가 사용했다고 하는 예의 호화스러운 방에 다시 되돌아갔을 때에는 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돼 있었다. 최후까지 “노——”를 외쳤다. VIP실을 나왔으니, 그들은, 나의 「입북」과 「지하조직구축」이라는 스토리를 포기할 작정으로 있었을까? 가슴의 고동이 가라앉지 않은 채, 나는 아주 초조하게 고문실을 나왔다. 하지만 심문은 또 계속되었다.

조국은 무엇이 죄인가를 말한 적이 있는가

김용성이 연세대학교 친구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추궁하기 시작했다. 국문과의 동기생 이름이 5, 6명 나왔을 때, “이 자들과 학생데모에 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고 김용성의 추궁을 받았다. 그의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국내의 나의 친구들까지 휩쓸어 넣자는 것이었다.

나의 학생시대는 —— 특히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던 1980년 3월부터 광주사태가 일어나는 동안은 물론이고, 그 후에도 집요하게, 빈번히, 학원 데모가 반복되고 있었다. 연세대학에서는 무악제라고 불리는 학원제를 정점으로, 광주사태의 방아쇠가 된 5·17조치(전국대학의 휴교와 3김씨 등의 체포에 의한 계엄령 강화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데모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서울의 봄」은 아직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스크림을 짰던 것이다. 대학생의 조직력과 정보망은 정확하게 전두환의 음모와 그것을 지지하는 군부의 역량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 해 5월 15일, 서울역앞의 10만 대학생 집회에서, “청와대로 가자, 군이 출동하면 총을 빼앗아라”고 외치는 일반학생의 열기를 억누르고 해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은, 학생지휘부가 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자숙론을 지지했다.

70년대에 들어서려고 할 즈음, 제일한국인 모국유학생 스파이사건으로 세인을 놀라게 한 서승(徐勝), 서준식(徐俊植) 이래, 줄줄이 구속되어 온 제일한국인 스파이 말석에 내 이름이 더해지게 되는 의외의 현실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몇십 명이나 되는 제일동포선배들이, 꿈에서까지

보던 조국의 땅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고통과 굴욕을 맛보면서 본국권력의 제멋대로의 해석과 날조에 의해 소위 「북의 공작원」이 되는 것이다.

“설령 일본에 있어도, 김일성과 그 지지자에 대해서 철두철미 적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애국심이라는 것이다.”

고병천의 말이다. 이 말은, 수십 년 이래, 본국과 해외동포를 전율시케온 법적 근거에 의해 보장되어 왔다. 마치 어린애가 출입금지의 잔디밭에 들어갔다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반공법, 오늘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이 고병천의 말의 근거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이 스파이로서 기대하는 것은 A급이라고 불리는 소위 거물이다. A급 정의의 항목에는, 무장, 난수표 소지, 밀봉교육 수료, 지도적 임무에 종사 등등, 007을 뺀치는 것들이 올라 있다. 그들이 내게 죄라고 단정내린 것은, 조국의 남쪽에 있어서의 유신독재를 거부하고 통일조국의 지평을 열고자 울타리 저쪽을, 금단의 땅으로 되어 있는 조국의 북을 알리고 한 것이었다. 그 사실을 뒷날, 고병천은 나에게 자기 나름의 말을 했다. “본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서성수를 고발하지 않았다. 그것이 죄다.”—— 하지만, 제일동포로서의 나의 윤리감각으로는 그 거꾸로가 죄인 것이다.

일본에는 일체 연락하지 마

비오는 날이었다. 아침에 고병천이 방에 나타났다.

“너를 오늘, 집에 돌려 보낸다.”

고병천은 전기면도로 수염을 깎으라고 했다.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었다. 나의 혐의가 완전히 풀려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좌였다. 고병천은 각서를 받겠다고 했다. 나는 어떻게 쓸지 망설였다. 자기가 하는 말을 옮겨 쓰면 된다고 했다. 고병천의 대사는 이러했다.

“나는 북한괴뢰집단의 흑색선전에 현혹된 나머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반역행위를 하였습니다. 나는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지 않으면 안될 대역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나입니다만, 관계당국의 관대한 처치에 의해, 갱생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무상의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이후는, 조국을 공산주의 침략의 마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관계당국의 지시 아래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고병천은 서명 날인하라고 말했다. 나는 따랐다. 이 일주일 동안 그들이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나 혼자 약자로서, 쓸데없는 부분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나는 그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고 했다. 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상, 또 그들이 나에게 온갖 거짓과 공갈을 되풀이한 이상, 그들과의 약속에 대한 신의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할 턱이 없었다.

그들은 만년필도깨비같은 것을 나에게 주면서 서독제라고 자랑했다. 전파발신기였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이 「만년필」을 몸에서 떼어서는 안된다고 그들은 몇번이고 나에게 당부했다. “직장일은 걱정 말고, 내일부터 보통으로 출근해. 학교에도 나가”라고도 말했다. 나의 직장인 삼성종합연수원의 원장이 현병대의 2성장군 출신으로, 자기들에게 협조적이라고도 말했다. 그 누가 물어도, 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대답하라고 했다. 일이 끝나면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매일, 일요일에도 쉬지 말고, 자기들에게 연락하라고 말하면서 721-0323이라는 전화번호 외에 세 개의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었다. 거기에서 고병천과 이덕룡의 이름이 적힌 메모도 넘겨 받았다.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석방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느꼈다. 그들이 가장 힘을 주어 못을 박은 것은 「일본에는 일체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내일 아침 출근시에는 집 밖에 수사관을 대기시킬 테니까 내 패스पोर्ट를 가지고 나오라고도 말했다. 여러 가지 지시에 위반하면, 다시 여행해서 두 번 다시 해를 못보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수사관——이덕룡은 이렇게도 말했다.

“너는 우리들의 손바닥 위에서 허우적대는 버릇과 같아. 아무리 뛰어도 사람의 손바닥에서 멀리 떨 수는 없는 거야. 잡아 몽개면 끝이야. 어쉴뿐 밀항 따위를 생각해도 아까 찍은 사진을 뿌려 지명수배를 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각오해!”

나를 포함해 여섯 사람이 두 대의 차에 나누어 탔다. 비가 마구 내리는 서빙고를 뒤로 했다. 용산역 앞의 혼잡이 그렇게도 반가울 수가 없었다.

고병천의 판단과 결단

나는 일본에서 반정부활동의 경험이 있을 뿐이었다. 정부의 시책에 비판

적·부정적인 「불순분자」와의 접촉이 빈번하고 한국말에 능했다는 것이, 그들의 감시대상이 되었던 이유였다.

거기에서, 내가 세들어 사는 집 주인이 건설회사의 간부로 오랫동안 해외에 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수사관들에게 망상에 망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희망적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김병진은 북한태생으로 대남공작원으로서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왔다. 이렇게 해서 그는 한국어가 능숙하다. 어떤 시기, 북한은 김병진의 대남침투를 전제로 해서 실제 인물을 납치, 뭔가의 방법을 구사해서 일본에 침투시킨 후 재일동포 2세라는 합법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 후, 한학동에 침투시켜 민단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공작임무에 종사시켰다. 북한의 대남연락부에서는 남한의 지하조직 재정비에 분주한 나머지, 김병진에게 남한 직접 침투를 지시했다. 김병진을 위해 아지트를 제공한 것이, 중 근동 여러나라를 전전하던 중 북한공작원에 포섭된 우회침투 간첩(즉 우리가 세든 집주인)이요, 국내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은 이미 지하조직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후일, 김국련과 이덕룡으로부터 우스개로 고백받은 나의 「스토리」이다. 그들의 과대망상은 웃음거리의 영역을 넘어 무서운 것이었다. 미치광이에 게 식칼을 주었다고나 할까!

나의 유폐가 끝나는 1986년 2월 1일까지, 또 어느 의미에서는 지금까지도 나에게 가장 기분 나쁜 존재는 고병천 준위다. 그는 수많은 재일동포를 스파이로 조작해낸 인물로 어느 수사관보다도 재일동포의 상황과 심리에 정통하고 있었다. ‘김병진을 지금 철저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서,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정을 가장하면 「불순분자」의 본국내왕은 계속 이어진다.’ 이러한 고병천의 판단과 결단은 나를 석방——실은 일시 석방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고병천, 김용성 일행이 우리집에서 나갈 때 이덕룡은 기묘한 말을 했다.

“김병진씨(씨를 붙였다), 여러가지 일이 있었지만, 김병진씨는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겠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좋은 인연이 될지 몰라. 한 번 술이나 같이 하지. 우리집은 이 근처야. 오늘 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은 밤샘이야. 참, 내 저 보따리를 맡아 줘. 오늘은 집에 들

것같지 않으니까. 이삼 일 있다가 가지러 올께.”

이덕룡은 커다란 종이봉지를 옷장 위에 놓았다. 도청기였다. 말기는 물건이라면 방 구석에 놓아도 될 것을…….

아내는 말했다. “말길 물건이라면 왜 이런 곳에 듬니까?” 아내는 종이봉지를 현관 신장 속에 뺨 던져버렸다.

빼앗긴 패스포트

다음! 차침, 나는 직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내게 지시한 대로, 나는 아내도 모르게 패스포트를 가지고 출근했다. 집을 나서자 갈색 승용차가 눈에 띄었다. 우영기와 젊은 운전기사가 타고 있었다. 밤새 내내 우리집을 감시하고 있었을까? 차창에서 우영기가 나에게 “다음 모퉁이에서 기다릴 테니까 걸어 와요”라고 속삭였다. 가서 본즉, 우영기는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패스포트를 줘.”

그렇게 말한 우영기가 나의 패스포트를 빼앗고, “이덕룡씨가 어제 말긴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 집에 가서 가지고 오지”라고 말했다.

그때, 내 뒤에서 “여보”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나를 따라왔던 것이다.

“남편을 또 데려가는 겁니까?”

아내의 항의에 우영기는 당황한 모양이었다.

“부인, 그런 게 아니라 어제 직원이 말긴 물건을 찾으러 온 거요.”

나는 일단 집에 들어가 말긴 종이봉지를 우영기에게 넘겨 주었다.

연수원의 일본어과 실무직원인 이과장이나 황대리 그리고 강사동료들은, 내 몸이 불량배들한테서 얼마나 짓이겨졌는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크라운 호텔

우리 가족은 약속장소인 크라운호텔까지 택시로 갔다. 우리 가족에 대한 저들의 대응은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아내에 대한 압박음과 회유였다. 아내 대해서는, 처자를 인질로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연금장소로 할 작정인 듯했다.

아기를 안은 아내와 나는, 크라운호텔 지하실에 있는 「구룡」이라는 고급 중화요리점에 안내되었다. 거기에는 수사2계의 전원, 즉 학원반과 대일반 전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용성은 일본담배를 피워보았다느니, 북한의외교관이 동백기름을 발랐다는니,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역력했다. 그런 김용성의 따분한 이야기에, 남편의 연행에 대해서 언급이 없음을 알아차린 아내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지 기어이 입을 열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을 아십니까?”

남자들은 순간 침묵했다.

“남편은 애국자입니다. 고국을 찾아와, 재일동포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국어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서 조국은 지독한 몽둥이질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가족의 큰 기둥을 제멋대로 숙이고 데리고 가서, 온몸에 멍을 들여 놓고 돌려 보냈던군요.”

“아주머님, 진정하세요.”

고병천이, 금방 울음이 터질 것같은 아내를 향해 말했다.

“우리들의 실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들은, 확실히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나의 연행을 아주 간단히 자기들의 실수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어서이다. 그들은, 아내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저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고병천은 그들이 설정한 목적의 핵심에 다가섰다.

“하지만 아주머님, 이번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남편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어요?”

“나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떠들썩하게 하는 것은 남편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계신 아버님이 근자에 서울에 오신다지요? 설령 친아버님이라도, 떠들면 두고 두고 귀찮은 일이 생깁니다.”

“시아버님께 이야기해서 걱정을 끼치는 것은 우리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친정은 제주도인데, 기관에 연행된 사람들의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구 말구요. 내 친구의 아버님은, 후배들이 일본에서 조총련의 간부라는 이유로 지독하게 당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결국 자살했거든요. 나는 그런 어리석은 흥내는 내지 않겠습니다.”